

한라포커스 전기차 충전 걱정 없는 제주... 핵심 과제는

미래산업 기대감... 안전성 검증은 숙제

규제자유특구 지정 따라 15개 업체 실증 돌입 충전 고도화·공유·이동식 서비스로 중점 추진

정부가 제주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새로운 미래산업이 생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특구 지정의 '답보'로 내건 높은 전기차 보급률·충전시설 확충이 수포가 될 수 있어 핵심과제 이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지정됐나-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전기차 충전을 비롯한 제조·판매·개조·재사용·폐차 부문에 대해서도 특구 지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7월 탈락했다. 부족한 제조시설과 물류비용 부담 등으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제주도는 높은 전기차 보급으로 축적된 '이용자의 요구'에 주목했다. 수년간 전기차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충전'에 따른 불만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기차 충전 관련 업체도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15개(도내 9개·도외 6개)에 달해 연구·실증을 위한 조건도 갖춘 상황이었다.

이후 특구 재신청 때는 '전기차 충전 걱정 없는 제주'를 주제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을 제안, 지난 12일 최종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혜택은-공유 플랫폼 구축의 경우 전기신사업자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소유의 충전기를 사업자에게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도내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개인 전기차 충전시설이 공유 플랫폼에 편입돼 누구나 사용이 가능

해진다는 말이다.

용량 고도화는 기존 1시간10분 소요(코나 기준)되던 급속충전기(50kW)에 에너지 저장장치(50kW)를 추가로 설치, 충전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안전인증 기준이 없어 상업화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특구 지정으로 규제가 풀렸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역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등록이 불가능한 부분이 해소됐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정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정부가 '시험공간'이 될뿐더러 실증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열을 올린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지정 결정을 내린 산업통상자원부는 "먼저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한 뒤 급속충전기에 설치해 운영하라"면서 "이동식 충전기도 단계별 안전성 실증이 반

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실증은 도내에서 2년간 이뤄지며, 성공할 경우 또다시 2년 동안 전국에서 실증할 수 있는 '임시허가'가 진행된다. 임시허가까지 통과하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실시,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

▶미래산업 가능성-제주도는 2년간의 도내 실증 기간에만 110명의 고용, 330억원의 생산유발, 300만달의 수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임시허가와 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제주의 경제구조가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검증에 힘을 쏟아 부울것"이라며 "실증에 성공하면 향후 개조와 재사용 분야로 발을 넓혀 제주가 전기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원 지사 공약 '에월 느낌의 길' 원안대로

원 지사 공약 '에월 느낌의 길' 원안대로

조정·변경 시도했지만 좌초
여성친화도시도 '계획대로'

민선 7기 원희룡 도지사의 공약인 '에월 해안도로 느낌의 길' 변경 시도가 좌초돼 원안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차례에 걸친 '도심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핵심공약 개선안과 일부 공약의 조정·변경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55명으로 구성된 도민배심원단은 외부 전문가에 의뢰,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해 선정됐다.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변경과 관련된 10건의 '심의안건'과 핵심공약 의견수렴 10건의 '평가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심의안건 10건 가운데 8건은 승인이 이뤄졌지만 '느림의 길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미승인됐다.

느림의 길은 제주시 에월해안도로(곽지~가문동 포구) 12.08km 구간을 대상으로 경관 개선사업과 친환경 무인 자전거 대여소, 지역 특산물 판매소·체험장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담당 부서에서 '인위적인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부족'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심의안건에 올랐지만 미승인됐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는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수놓음 육아 나눔터 조성 확대에 대해 각각 축소와 연장을 시도했지만 미승인 처리됐다.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는 한걸음과 안전 섬 구축,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등 공약 10건이 다뤄진 평가안건에서는 총 48건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미승인된 2건은 조정·변경 없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배심원단의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공약이행 과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서귀포시 정책 시민들이 직접 평가한다

시민평가단 125명 워크숍

서귀포시가 부서별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시민평가를 통해 만족도 높이기 위해 나선다.

시는 13~14일 이틀간 시청 별관 4층 셋방에서 서귀포시 정책만족도 평가단(이하 시민평가단) 125명과 각 부서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단 분야별 워크숍과 집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정책만족도 평가는 시에서 추진하는 부서별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수치적으로 점수화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54개 부서에서 올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 관련 90개

핵심사업 과제를 ▷일반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체육 ▷경제안전교통 ▷도시환경 등 총 5개 분야별로 분류해 전문 조사기관 교육과 함께 시민평가단이 집합조사를 실시한다.

분야별로 부서장이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시민평가단 위원들은 홍보성·효율성·만족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워크숍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시민평가단 위원들은 11~12월 중 스마트폰, 전화 등 설문으로 평가하게 된다.

시민평가단 위원들의 평가 결과는 부서 성과관리(BSC) 조직평가에 반영되며, 앞으로 서귀포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가게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가 마련한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 학술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제주 강점분야 특구 추진... 특별법 근거해야”

도의회·국회입법처 세미나
정승훈 연구원 “제도개선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특구를 추진할 때 정부가 강점을 가진 분야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17년 8월 체결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해 개최한 것으로, 지난해 제주도의

회에서 개최된 데 이어 올해에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렸다.

정승훈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특구전략과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도전역 사후 면세지역화와 같이 제주특별법 규정이 마련돼 있음에도 소관부처의 반대로 후속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사문화되는 것은 제주특별

세정발전모니터 운영회의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도청 1청사 한라홀에서 '세정발전모니터 2차 세정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세정운영회의에서는 올해 지방세 징수 현황과 세정 운영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내년도 세정운영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세정발전모니터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정발전모니터는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정대학 수료생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송은범기자

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의 의미를 되새킨다"며 "다만, 특정부문에 대해 규제자유화를 추진하더라도 국가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제주도가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해 '규제자유특구'와 동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서귀포시 공고 제2019-2635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4.

서귀포시장

1.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가.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증에 대비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을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임

나. 열람기간: 2019. 11. 14. ~ 11. 29.

다.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귀포시 도시과(☎760-2973, FAX 760-2979),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3차원 지리정보포털 (http://gis.jeu.go.kr)에서 확인가능

2.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3. 문의처 서귀포시 도시과(760-2973, 2975)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전국바둑대회

■대회개요
○ 일시: 2019. 11. 17(일) 09:00-17:00
○ 장소: 오름고등학교 체육관
○ 주최: 제주신문,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참가부

구분	참가종목	참가조건	참가자격
전국부	최강부	*3인 단체전 (선수총원 및 교체가능) (주니어2명, 시니어 또는 여성선수1명)	*제한없음
	전국동호인부	*4인 단체전 (후보선수가능) - 17개 시·도 (시·군·구 바둑협회) - 고교·대학동문 (2개 학교연결가능) - 직장동우회 (기업, 공무원)	*2019년 4월 30일 이전 생년월일 기준
	여성단체전	*3인 단체전 (후보선수가능)	*여성회원
	초등 최강부	*전국 초등학생 32강	*제한없음
제주부	중·고등 최강부	*전국 중·고등학생 32강	*제한없음
	제주최강부	*개인전 (총호선)	
	단체부	*3인 단체전 (3단 이하)	*동호인전
	유단자부	*개인전 (초단-4단)	*첫수제
제주학생부	급부	*개인전 (3급-1급)	*첫수제
	여성부	*개인전 (만19세 이상)	*첫수제
	중·고등부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초등최강부	*제주도내 초등학생 (3급 이상)	
제주학생부	고급부 4-9급	*제주도내 초등학생	
	중급부 10-14급	*제주도내 초등학생	*각부 총호선
	초급부 15-19급	*제주도내 초등학생	
	핀야부 20급이하 유치부	*제주도내 초등학생	

■접수방법
○ 접수기간: 제주부 9시 09시까지 현장 접수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064-756-5033)

제주특별자치도바둑협회

제19회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단합대회

오곡이 풍요롭고 삶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금번 제19회 한국부티고등학교 총동문회 단합대회에 총동문회 회원, 가족 및 모교 교직원 그리고 재입학하신 은사님, 재학생들을 모시고 화합과 우정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 하오니 공사다망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로 총동문회 단합대회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2019년 11월 17일(일) 오전10시
장소 한국부티고등학교 체육관

■주최: 한국부티고총동문회
■참석대상: 전 동문 및 가족, 교직원, 재입 은사님, 재학생
■종목: 족구, 배구, 윷놀이, 줄다리기, 골프대회, 기념노래자랑
■연락처: 회장 오훈경 010-3406-3787
수석부회장 김용남 010-8661-1820
사무총장 김재형 010-3698-7388
사무국장 조영기 010-4104-8556

○ 참가상과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각 회기별 회장 또는 총무는 많은 동문 회원이 참가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전세버스 2대가 운행 됩니다.

한국부티고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오훈권

식재전문인마트 MARTRO 뉴·윙드마트

Essential Vegetable Hot Deals

아름다운만큼 저가가 토와드겠습니다!

본 상품은 시세에 따라 금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우	24,000원
박스(8-10입)	
배추	12,800원
1망(3입)	
대파	15,800원
1단(8kg)	
양파	11,500원
1망(15kg)	

해당점: 마트로 3개점(탐동점 756-6900/일도점751-4600/노형점745-7411) 뉴윙드마트 1개점(신제주점 745-4600)